

지역 소식통

완주군 봉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전 개최

완주군이 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15일 완주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제안 도시재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봉동지역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사업이나 마을 가꾸기 및 환경조성 사업,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 자유주제로 공모 가능하다.

봉동주민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나 사업대상지 내 주민협의체 회원 및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이고 봉동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wjrt@wanjub.org)로 제출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초청 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김제시장애인체육회 임원 20명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장애인 체육발전 등 역점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정 역점사업과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장애인체육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로컬푸드 활성화 자금 지원

완주군, 20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자 공모 2년 연속 선정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경영 자금 지원 생산자 소비자 교육 추진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센터장 박봉산)가 '20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자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난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해 공모 및 선정하는 국비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교육비 등의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대상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선정으로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출하하는 로컬푸드 생산 농가 교육과 공공급식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운영은 급식지원센터가 주관해 생산자단체, 학교, 어린이집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완주군은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자 교육은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 기준 등 출하 원칙을 준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안전 교육은 토양관리부터 생산 및 유통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촘촘히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대장균 등 유해 세균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한 완주군의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 방침에 발맞춰 수확장비 및 저온 저장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도 포함 될 예정이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교육도 병행해 생산자가 품질 기준에 부합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소비자 대상 교육은 학교, 공공급식 등의 영양교사,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생산돼 식재료로 공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으로 추진된다. 어린이집 원아를 위한 어린이 로컬푸드 교육도 실시한다.

박봉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 연계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공감대를 통해 생산 및 소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2020년 중점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허전 김제 부시장, "핵심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열정과 신념을 다할 것"

김제시가 민선7기 반환점을 앞두고 시정발전의 견인하는 핵심사업의 실행동력 확보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고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허전 부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7개 중점·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토대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업무공유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김제 선안 자연휴양림 조성,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된 사업들의 추진속도 제고 방안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년일자리사업, 교통환경 개선사업,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등의 추진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2020년 중점·현안사업은 ▲김제 농약전통체험관 건립 ▲백구 제2특

장차 전문단지 조성 ▲가족센터 건립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가라망 대중소로 확충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등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농업기술센터 이ური 농촌지도사, 백혈병 환자에 새 생명

완주군 새내기 공무원이 백혈병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에 근무하는 새내기 공무원인 이ური(29) 농촌지도사가 백혈병 환자에게 새 삶을 주는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올해 1월 임용된 이씨는 대학생 시절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을 알게 됐고, 헌혈의 집을 통해 2014년 1월에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했다.

비혈연 환자와 기증자간 유전자 일치할 확률은 0.005% 정도로 극히 낮다. 하지만 한국조혈모세포 은행협회로부터 일치 환자가 나타났다. 이 전제지자 이 지도사는 주저 없이

알굴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이식을 진행했다.

이씨 평소에도 헌혈 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고, 최근 코로나 19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헌혈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 씨는 "기증을 신청하기까지 어렵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골수 이식'이라 불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혈액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은 성분채혈 장비(헌혈)로 약 5시간동안 몸에 있는 피를 뽑으며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의 유지 조항에 따라 기증자와 이식을 받는 환자는 서로에 대해 일체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동료 직원은 "이 지도사의 기증 소식에 놀랐고, 존경스러웠다"며 "평소 선행이 몸에 배어있는 친구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할 줄 몰랐다. 이 씨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하랑영농조합법인(대표 허정수)은 최근 김제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토마토 500박스를 시에 기탁했다.

"맛 좋은 토마토로 응원합니다"

하랑영농법인, 김제시에 스마트팜 재배 토마토 500박스 기탁

하랑영농조합법인(대표 허정수)은 최근 김제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토마토 2kg 500박스를 기탁했다.

허정수 대표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변의 이웃에게 힘을 주고 건강의 보탬이 되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탁받은 토마토는 아동·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및 독거노인들에게 전

달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국에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늘어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줘서 감사하며 모든 역량을 다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랑영농조합법인은 약 1만여 평의 스마트팜을 통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인터넷과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을 만큼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엔푸드,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주)이엔푸드(대표이사 문형선)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을 방문해 김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제시 백선면 부거리 지평선산업단지 소재 농업 회사법인 (주)이엔푸드는 계속 가공식품을 제조 및 유통 판매하는 업체로, 가공 닭가슴살 브랜드 '수비드림'에 이어 닭가슴살 스테이크 및 소시지 브랜드 '에브리원세프'를 런칭하고, 자사 소프몰 운영 및 푸드 콘텐츠 개발 등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금년도 5월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부와 전북도가 주관한 '2020년 전북지역 스타기업'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장학금 기탁식에서 문형선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지역 사회 발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



을 기탁해 뜻깊고,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 인재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배 이사장은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내고장학 교보내기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지평선학당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서울에서 김제지평선장학숙 운영을 시작하여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